

2026. 7. 14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7월 14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
(설계 주관)

문화본부 문화정책과
(사업 주관)

세종문화회관
(세종문화회관 운영)

미래공간담당관	김지호	2133-7640
공공건축2팀장	정아선	2133-7633
문화정책과장	이영미	2133-2510
문화협력팀장	김나연	2133-2526
시설운영팀장	김동원	399-1550
문화Biz개발팀장	이종기	399-1720
누 리 집	http://project.seoul.go.kr	

사진없음 ☐ 사진있음 ☒ 쪽수 : 4쪽

'광화문·경복궁을 한눈에'... 세종문화회관 옥상, 연내 시민 개방

-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·외부 엘리베이터 건축허가 완료... 실시설계 후 9월 공사 착수
- 경복궁, 광화문광장과 감사의 정원 조망 가능한 공공 옥상정원... 공사 안전관리 철저
- 녹지·휴게공간·전망데크·카페 갖춘 서울 도심 대표 전망명소로... 시민 누구나 이용

☐ 광화문광장과 경복궁, 북악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.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전망명소이자 '공공 옥상정원' 조성을 위한 첫 관문인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.

☐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조성과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공사에 착수해 연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사업은 활용도가 낮았던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시민에게 개방해 서울 대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공 옥상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. 옥상에는 녹지와 휴게공간, 전망데크, 카페 등을 조성하고, 외부 엘리베이터를 신설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.

□ 서울시는 최근 개장한 청사 내 '하늘전망대'를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을 돌려주기 위한 공공 전망공간 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세종문화회관 옥상은 그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다. 앞으로 시민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, 자연이 어우러진 도심 경관을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.

- 하늘전망대는 서울시청 1층에서 9층 하늘광장 카페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로 시민 누구나 별도 예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망대이다. 청사 서측 외벽을 투명유리로 교체하고 벤치와 데크를 설치하여 전망 및 휴식공간으로 최근 개장하였다.
- 덕수궁과, 정동, 광화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명소로 최근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.

□ 특히 세종문화회관 옥상은 경복궁과 광화문광장, 감사의 정원, 북악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어 서울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휴식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,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공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. 아울러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, 경복궁을

하나의 문화 축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경관 자원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.

- 또한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해 보행약자와 관광객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였다.
- 서울시는 공사 과정에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,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과 휴게시설, 카페 운영계획 등을 세심하게 마련할 예정이다.
-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"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전망공간이자 일상 속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시민명소로 조성해 시민 누구나 찾고 싶은 서울의 매력명소로 만들겠다"고 하며 "건축허가가 완료된 만큼 향후 공사일정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연내 시민께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조감도자료



세종문화회관 옥상 전망대



세종문화회관 옥상 카페 앞 전경